



기 못퍼는 문화·예술 본향 출신들

<11>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는 문화와 체육, 관광에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특히, 문화관광부는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 F1 특별법 지원 등을 관장하는 주무 기관으로 최근 그 어느 정부 부처보다 광주·전남지역의 주목을 받고 있다.

5공화국과 6공화국에서 문화관광부 전신 부처의 인맥 형성은 영남 군부 세력의 전리품 성향이 강했지만 문화부와 체육부가 통합된 이후의 문화체육부 및 문화관광부에서는 지역적 편차가 그리 크지 않았다는 평이다. 그러나 호남이 문화·예술의 본토라는 점을 감안하면 문



1993년 통폐합 이전까지 영남인맥 강세...현 고위급 6명뿐

광부 내의 호남 인맥 형성은 그다지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우선 전두환 정권에서부터 노태우 정권 중반까지 유지됐던 체육부와 체육청 소년부 장관 10명 가운데 영남 출신은 모두 6명(노태우, 이원경, 이영호, 박세직, 김집, 박철언)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 출신 2명(이세기, 정동성), 충청 출신 1명(이진삼) 등으로 집계됐으며, 호남 출신은 조상호 장관 1명 뿐이었다.

광부 내의 호남 인맥 형성은 그다지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같은 기간 문화공보부 및 문화부 장관 9명 가운데 영남 출신은 4명(이진희, 이원홍, 최병렬, 이수정)으로 나타났으며 서울·경기 인맥이 2명(이광표, 이웅희), 충청 출신이 2명(정한모, 이어령), 강원 출신 1명(이민섭)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차관 8명 가운데 영남 출신이 4명, 서울 출신이 2명, 북한 출신이 2명으로 나

타났다.

영남 강세의 인맥 구조는 지난 93년 문화부와 체육부가 통폐합된 이후 급격히 약화됐다. 93년 이후 국민의 정부까지, 문화체육부 및 문화관광부 장관 9명 가운데 충청 출신이 3명(주돈식, 송태호, 남궁진), 경기 출신이 2명(김영수, 신낙균), 강원 1명(이민섭), 해외 출신 1명(김한길), 영남 출신 1명(김성재) 등으로 나타났다. 호남 인맥으로는 전남 출

신의 박지원 장관이 유일했다.

차관 8명 가운데 영남 출신이 3명, 충청 출신이 3명, 서울 출신 1명, 전북 출신 1명 등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들어서 임명된 문화관광부 장관 4명 가운데 호남 인맥은 광주 출신의 정동채 장관, 전북 출신의 김명곤 장관 등 2명으로 집계됐으며 영남 인맥 1명(이창동), 충청 출신 1명(김종민 현 장관) 등으로 나타났다. 차관 4명 가운데서도 영남 출신이 2명, 인천 출신 1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현재는 전남 출신의 박양우 차관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문화관광부가 국회에 제출한 고위공무원단 현황에 따르면 전체 40명의 고위 공무원 가운데 호남 출신은 6명이었다.

이 가운데 광주·전남 출신은 위육환 정책홍보관리실장과 조현종 국립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장 등 2명에 불과했다. 영남 출신 12명, 서울 출신 14명 등에 비하면 크게 뒤쳐지는 상황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현장과 시각

어느 나라 국회의원들?



박치경
정치부 차장

“저 사람들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야?”

지난 22일 ‘F1(포플러원) 특별법’을 다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 결과를 전해들은 광주 전남지역주민들은 또 한 번 혀를 내둘렀다. 이날 문광위 법안심사소위는 지역 숙원사업인 F1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심의했지만, 위

원장 선임문제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하는 바람에 의결하지 못했다. 6명으로 구성된 법안심사소위 위원 가운데 참석자는 무소속 지방문·전병현, 열린우리당 정창래 의원 등 3명. 한나라당 장윤석·최구식 의원 등이 불참한 것은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전병현 의원의 우리당 탈당에 따른 위원장 자격 갈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손봉석 의원은 해외출장 중이었다.

전체 위원 6명 가운데 3명만 참석한 회의에서 특별법안 심의는 마쳤지만 정족수(4명) 부족으로 의결이 유보돼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F1특별법안 통과는 막다른 골목에 갇힌 형국이 됐다.

특별법 통과를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던 전남도 간부들은 크게 실망했다.

공교롭게도 박준영 지사는 파리의 세계박람회기구(BIE) 141회 총회 참석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2012 여수 엑스포 유치교섭활동을 벌이느라 만발치에서 발만 굴러야 했다.

예를 태우며 국회를 땀뿜던 전남도 간부들의 모습도 처량했다. 이상민 정부부차와 관계 부서 공무원들은 한 주 내내 여의도 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의 옷소매를 붙들고 특별법안 통과를 애원했다. 격무 때문에 두 달 전부터 증중 허리디스크로 고생하고 있는 강진원 기업도시기획단장은 법안 처리 후 수술받겠다고 한 쪽 다리를 절면서 국회의원 회관을 예매 주문의 ‘잔학’ 시선이 모아졌다. 이같은 전남도의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선임 문제를 내세워 회의를 보이콧한 한나라당에게 보내는 지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정치권의 정치싸움에 나라살림이 멎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F1특별법은 호남지역 대선 지지를 의식해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기회있을 때마다 호남 옹호론을 퍼왔던 한나라당의 이번 처사는 지역민들의 불만을 사기에 충분했다.

더욱이 지난 22일 F1특별법의 중요성을 감안해 순번이 앞선 안건을 제쳐놓고 먼저 심의하기로 각당이 약속까지 해놓고 회의에 불참해버린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은 당의 호남구애를 무색케 했다. 한나라당에 대한 지역민들의 주문은 ‘칠’마다 물러와 귀에 달콤한 말만 늘어놓을 게 아니라 진정성을 보여달라는 것이다.

/unipark@kwangju.co.kr



전쟁기념관 찾은 참전용사들 6·25를 하루 앞둔 24일 오전 재향군인회 초청으로 방문 중인 미국, 콜롬비아, 그리스, 네덜란드 등 해외참전용사들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야외전시장을 구경하던 어린이들과 경례로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北 “7월초 6자 단장회담·8월 외무장관 회담 검토”

북한 외무성은 7월 초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과 8월 초 6자 외무장관회담 개최를 검토해 성사시킬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방북결과에 대해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가진 문답에서 “쌍방은 당면하여 7월 상순에 6자 단장회담과 8월 초 필리핀에서 있게 될 아세안 지역연단(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RF) 상(장관) 회의기간 6자 외무상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외무성 대변인의 언급은 힐 차관보 방북 이후 첫 공식반응으로 하루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히 이뤄져 눈길을 끈다.

/영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핵 폐쇄 작업 돌입?

IAEA 실무대표단 26일부터 나흘간 방북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무대표단이 북핵 2·13 합의에 따른 북한 핵시설의 폐쇄·봉인 절차를 협의하기 위해 오는 26일 방북한다고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이 22일 밝혔다.

엘바라데이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리 하이노엔 IAEA 사무차장을 비롯한 대표단 4명이 24일 오스트리아 빈을 출발한 뒤 베이징을 거쳐 26일 평양에 도착할 예정이며 오는 30일까지 나흘동안 북한에 머물 계획이라고 전했다.

엘바라데이 총장은 “우리는 북한 영변 핵시설 폐쇄를 검증하기 위해 길고도 복잡한 과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것은 올바른 방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IAEA 실무대표단의 방북 일자가 확정된 것은 러시아 정부가 이날 마카오 방코 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동결됐던 북한 자금이 러시아 은행의 북한 계좌에 곧 입금될 것이라고 확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방북에 앞서 21일 방한했던 카투바 차툼보 IAEA 안전조치국장은 23일 오후 베

이징으로 출국, IAEA 대표단과 합류할 예정이다.

북한은 지난 16일 북한 원자력총국 리제선 총국장 명의로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IAEA 실무대표단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

이와 관련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23일 북한 영변 핵시설 폐쇄에 3주간의 시한이 설정됐으며 그 시한이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힐 차관보는 북한과 한국을 거쳐 이날 오전 일본을 방문,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직후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미국과 북한이 이같이 일정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핵시설 가동정지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며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무대표단 사이에 핵가동 정지 절차를 어떻게 모니터링할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뒤 핵시설 폐쇄 정지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베를린=연합뉴스

이태리가구 전문점

1년 딱 한번
7월 19일까지
% Off SALE

www.홍스페이스.kr www.hongspace.kr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구도청옆) 홍스페이스 빌딩 062)226-7567

IMPERIAL HYBRID CASUAL

세정아울렛 2층 임페리얼 [광주상무점] OPEN

EVENT

여름 신상품
30~50% SALE (일부품목 제외)

구매후 고객님께 사은품 증정 | 매장위치: 광주 세정아울렛 2F(엘리베이터 앞 에스컬레이터) T.062)384-8800